

# 시인의 꿈을 꾸던 소녀에서 문인으로 우뚝 선 최남희 시인



‘삶은 악보와 같다’라고 한다. 2022년 군포예술상을 수상한 최남희 시인이 걸어 온 삶의 음악은 어떤 곡조일까? 정해진 길은 없고, 걸어가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길이라고 말한 장자의 잠언을 생각하며 그녀가 만든 ‘군포 수릿길’을 떠올려 본다. 길을 통해 군포를 재 발견하게 해준 최남희 시인, 그녀와 설레는 첫 만남을 가졌다.

노벨문학상과 같이 큰 무대에서 상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녀의 꿈은 시인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만 앞서고 머릿속 공상만으로 만족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녀가 산본으로 이사 오면서 인생의 새로운 악장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임현영 선생님이 계신 수리샘문학회 4기로 합류하게 되었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2000년에 계간지 『미네르바』에 추천되면서 시부문으로 등단을 한 것이다. 그 후 군포예총 사무국장, 군포시민신문 기자, 군포문화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기까지 그녀는 군포의 예술인으로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녀의 삶과 문학, 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Q 문화도시 군포의 기반조성을 위해 애쓰셨는데요. 현재 본 도시 지정을 앞두고 군포 예술인들은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군포는 구석구석 숨은 보물이 많아요.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오솔길이나 마을의 골목길, 오래된 가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자연유산 등 군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스토리를 이끌어 내어 예술로 아름답게 표현하면 그게 군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군포다운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역과 연계된 예술이야말로 ‘지역에 대한 발견’을 구체화 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문인협회와 사진협회 미술협회가 함께 콜라보 한 ‘쓰고 그리고 줌인’ 작업이 좋은 예이죠. 군포예술인들의 협업으로 만들어 낸 콘텐츠는 군포문화도시 기반조성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군포문협, 군포예총, 군포시민신문, 군포문화재단 등 군포 문화예술 단체에서 일하셨지요. 가장 어려웠던 일은 어느 곳에서의 일일까요?**

다 각자 나름의 고충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군포예총 사무국장으로서 있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군포예총은 연합체라 개성 강한 분들이 모여 있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있었을 때는 초창기에서 중흥기로 넘어가던 시기여서,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고, 추진사업이나 예산 부분도 취약했던 때라 각 예술단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죠. 예를 들어 군포예총의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만 해도 당시 회당 예산이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예술가들을 섭외하고, 시민들이 반응할 때 보람이 있었어요. 지역의 예술가들도 흔쾌히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여담이지만 예인예술제 작명도 제가 했답니다.

각 예술의 장르를 총망라한 순수 예술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각 지부장님들의 열정으로 당시 시도비 지원사업을 함께 모아 2003년도에 처음 개최하게 되었고, 당시 사무국장이던 제가 ‘군포예인예술제’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19회째가 되었네요. 군포문화재단은 본격적인 조직생활을 하게 된 곳인데 철쭉축제 담당팀장으로서 대형 축제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행정서류, 프로그램 기획, 행사 진행 등 매일 회의에 야근에 정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20년간 군포문화예술에 깊이 발을 담궜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Q 본인의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나 멘토가 있다면?**

20대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의 시를 읽으며 시인의 꿈을 키웠어요. 우리나라 시인으로는 김수영, 김지하 시인이었죠.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야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중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성찰을 하는 시조. 시인은 늘 날카롭게  
벼려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저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은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하다보니 좀 늘어져 있는 듯도 합  
니다. 20년 가까이 예술가적 기질을 죽이면서 예술행정을 했던 시  
간을 떠올려 보면 감성보다는 이성적이어야 할 때가 많았어요. 그  
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어야 했으니까  
요. 그때 나를 지탱해준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의 버팀목은  
신앙이고, 가장 영향을 준 책을 꼽으라면 성경입니다.

**Q '군포수릿길' 이후 아직 저서가 없으시죠? 앞으로의 계획은요?**

수릿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군포시에 관광팀이라는 부서  
가 만들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 때 담당직원이 군포의 관광 콘텐

츠로 뭐가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죠. 당시 올레길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든 게 '군포수릿길'이에요. 제가 지역신문 기자  
로 활동할 때, '군포의 재발견 - 아름다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일  
년 간 기사로 써오던 것을 그 직원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게 군포  
의 올레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였고  
결과도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군포로 이사오면서 군포의 아  
름다운 풍경을 보고 언젠가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보다는 문화행정에 관한 칼럼이나 수릿길, 군  
포의 도시자원 등에 대한 산문을 많이 쓰다 보니 어느 결엔가 시  
를 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글은 행복하면 잘 안 써져요. 결  
핍과 불안 같은 감정의 낙차가 있어야 잘 빚어진 시어가 나오는데,  
요즘 신앙 덕분인지, 나이가 들어 수용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지 나  
의 내부에 갈등이나 결핍, 외로움 따위의 감정이 없다보니 시가 길  
을 잃었어요. 시를 쓰려면 감성이 날카롭게 베풀어져 있고, 한 발 뒤  
에 서서 세상을 관찰하는 철학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고 다 용서가 되고(?) 하다보니 그  
냥 편안한 시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라는 사람은 시인  
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으로 사명을 포

기하면 안 되겠지요. 2023년에 저도 한 권의 시집을 목표로 열심히 예술인으로서 몫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Q 얼마 전 군포문협 사화집 '그 길에 있다'에 실린 부산여행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여행은 항상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남기는데 어떤 여행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여행이라 하면 거의 '나의 8할은 여행이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와 관련한 결핍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엔지니어셨는데, 현장소장 발령으로 계속 지방에 내려가시게 되자, 엄마는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아버지를 따라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여서 언니 오빠들과 서울 집에 남아서 자취를 했었죠. 다행히 저와 나이차가 많은 언니 둘과 오빠가 있었지만, 성장기 때 엄마와 몇 년 간 떨어져 있다는 게 내성적이었던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움, 어떤 결핍감 같은 것이 사춘기의 풍부한 감성과 맞닿으면서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서부역 근처를 지나는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언니들이랑 버스를 타고 거기를 지나면 저 아래 열기설기한 기차길이 보여요. 어린 마음에 '저 기차를 타면 엄마한테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그리움이 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부터 기차는 항상 제게 그리움을 싣고 어딘가 미지의 세계로 나를 데려다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여행이라는 것에 향수를 느끼는 방랑기질이 깊이 각인되기도 했죠. 그 시절 기차를 타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다 보니 장거리 기차여행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부산, 울산, 여수, 삼척 등 발전소가 있는 곳은 다 갔었죠.

저는 깊은 산골이나 오지, 아주 인적이 드문 국도변 작은 항구 같은 곳을 좋아해요. 동강에 댐이 생긴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그곳에 가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오지 중에 오지였죠. 소위 구곡양장이라는 표현처럼 3시간을 차로 달려도 거의 인적이 드문 좁다란 시골길이었어요. 지금은 쪽 뺨은 신도로가 나면서 그 느낌을 찾을 수 없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길을 차로 달리거나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주 조용히 소요하며 걷는 발끝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짐을 느끼죠. 길은 나를 완성시켜 주고 나를 성장시켜 줍니다. 저만의 여행 코스 하나 알려 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정선의 길인데, 정선군 남면의 산길로 접어들어서 화암 약속터 쪽으로 나오는 길을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길을 따라 여행하며 그 길에서 느끼는 여행시를 써봐야겠어요. 그게 제 새로운 계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남희 시인은 정말로 길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인이다. 길 끝에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시인의 삶은 채워지고 영글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인으로서 우뚝 선 최남희 시인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대담 및 글 장은아



# 군포예술의 태동과 함께해 온 언론인 예술공로상 이영호 군포신문사 대표



## 1995년 군포신문 창간 주도, 군포예총 태동부터 성장과정 기록

2022년 8월 23일 반월호수 수변무대에서 열린 제19회 예인예술제 개막식에서 이영호 군포신문사 대표이사가 (사)한국예총 군포지회에서 수여하는 예술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영호 대표가 군포예술인들과 함께 한 시간은 매우 오래되었다. 수상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21년 군포예총25년사를 집필하며 군포 문화예술 역사의 산증인은 다름 아닌 이영호 대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언론인으로서 군포예총의 현판이 걸린 1995년부터 현재까지 군포예술인들과 동고동락해온 그의 여정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Q 먼저 예술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받은 상이 대표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총 회원도 아닌 저에게 단 한 명 뽑는 공로상을 주시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記者, 기록하는 자)라는 직업을 갖고 군포에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고 활자로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에 군포 예술인들이 저에게 예술공로상이란 과분한 상패를 주신 점은 그러한 기록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영광으로 여깁니다. 앞으로도 군포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기록하는 일에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Q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시정을 걱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군포신문과 함께한 대표님의 그간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군포신문 창간은 언제이며 이영호 대표님은 언제부터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군포신문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5년 5월 1일 군포문화신문으로 첫선을 보였습니다. 저는 창립멤버로 참여해 창간을 주도하면서 처음 군포지역사회를 깊이 들여다보게 됐고 1996년에는 군포예총이 태동하는 과정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군포예총 25년사에 기고한 글에서도 밝혔듯이 군포신문과 군포예총은 비슷한 시기에 발족했기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바로 군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군포신문은 각종 새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로, 군포예총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으로 군포시민들에게 기여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애향심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창간 10주년을 앞둔 2003년에는 제호를 '군포문화신문'에서 '군포신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저는 1995년 취재부장으로 시작해 편집국장을 거쳐 2007년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시장 하나 없던 1995년 지역예술인들이 도서관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시청 강당에서 공연하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군포신문 지면에 올려 제 옆구리에 끼고 군포 구석구석을 돌면서 배포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8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Q 군포에는 언제부터 살기 시작하셨는지요? 이영호 대표님이 오랫동안 살며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군포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살다가 1993년 가을 산본신도시 초기 입주자로 군포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3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수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27만의 도시 군포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전국 상위권 수준인 문화예술회관을 필두로 상상마을, 평생학습원, 생활문화센터 등의 문화시설과 분야별 명품 예술인들이 영혼을 불어넣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주고 있는 군포는 충분히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수도권 1기 신도시 규제 완화 및 개발 촉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의 욕구도 폭발하고 있어 도시발전이 기대됩니다.

산본신도시가 체계적으로 재정비되고 금정역, 군포역 일원 기존 시가지도 재개발되고 산본천 복원까지 이뤄지고 나면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춘 군포시는 수도권 제1의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시 단위 중에서 전국 세 번째로 좁은 면적(36.4km<sup>2</sup>, 인근 화성시 면적 844km<sup>2</sup>의 4.31%에 불과)인 만큼 개발에 한계가 있고 대기업체, 백화점 등 자족시설들이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Q** 군포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군포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군포문화예술계는 사실상 1993년 산본신도시 입주와 함께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구 10만도 안 되는 위성도시 군포로 모여들어 27만 도시를 만든 만큼 처음에는 낯설어 단체활동도 미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문인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등이 구성되고 장르별 예술인들이 모여 군포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에 점차 나서게 돼 산본신도시 입주 30년이 된 지금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풍토가 정착됐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과 자기권리 찾기에 소극적인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례로 군포문인협회가 창립되던 1995년 가을 지역 문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구성하지 못하고 군포시청의 모 과정이 주도해 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변변한 전시장 하나도 없던 1997년 그나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던 군포시청 민원실 앞 공간을 시 당국이 일방적으로 없애던 순간에도 목소리 한번 못 내던 무기력한 기억은 분명 반추해봐야 할 점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소극성과 무사안일주의가 ‘군포문화예술진흥기금’을 특정 단체가 독식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수년간 운영된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군포지역 예술인들이 어쩌다 한번 군포에 방문하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이들의 출연료 10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차별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할 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Q** 요즘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종이 신문은 사장된 듯하고 인터넷에서 접하고 있는 짧은 기사나 SNS를 통해 얻는 정보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실정인데요. 이런 시대에 지역 신문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언론인으로서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매스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 외에도 인터넷매체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언론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군포신문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종이신문과 온라인(인터넷 군포신문)으로 동시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홍수시대이지만 종이신문을 열독하는 독자층은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사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일목요연한 평가는 종이신문의 매력입니다. 경영여건 악화로 매주 발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1995년 5월 1일 창간 이래 28년째 꾸준히 종이신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군포신문은 유일하게 20년 넘는 군포지역 대표언론으로 불펜으로 줄까지 쳐가면서 열독하는 독자와 광고로 후원하는 시민들이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군포신문은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안이라면 권력층이나 특정 정파 관계없이 반드시 보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덕분에 군포신문은 28주년을 맞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수 많은 특종보도를 해왔기에 여전히 많은 시민이 믿고 제보를 해주십니다. 제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28년째 지켜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홍수 속에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경기도 내 31개 시군 40여 개의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제11대, 12대 회장을 역임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문은 크게 전국일간지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전국규모와 광역자치 단체급 소식을 다루는 일간지와는 달리 시군구 단위 지역 주간신문은 시민의 상세한 부분들까지 보도하는 생활밀착형 언론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신문은 기초자치단체도 하나의 작은 정부인 만큼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펜촉을 들이대야 하고 다 같이 기뻐할 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부단하게,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지역신문 제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신문을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Q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삶이 묻어나는 이야기와 생생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매체로 그 사명을 다하셨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군포신문 창간부터 28년째 재직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보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단체가 독식하던 군포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해 군포문화예술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했던 일과 군포소각장 설계회사인 독일 누르기社를 현지 취재해 군포소각시설이 음식물 쓰레기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조했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단속운전 해소방안을 제시한 일에 지역신문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모 교회가 국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 사용하던 사실을 밝혀 원상복구 했던 일, 군포선거구 국회의원 출마자가 매국노 이완용 후손의 땅찾기 소송을 대리했던 사실을 널리 알린 일,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등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와 건설사의 불법

적인 아파트건립 행위 고발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았던 일 등 수많은 사건 보도들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서울 은평구로 낙점됐지만, 국립문학관을 군포에 유치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동분서주했던 일, GTX 노선의 군포금정역 유치를 위해 앞장섰던 일, 국립철도대학을 군포 한세대에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일과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의 수리산 관통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현재는 군포당정역~서울역 구간 지하화를 위해 범시민추진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Q 이영호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근현대문학 100년의 역사를 한 곳에 집대성하는 국립문학관 건립 유치를 추진하기도 했고 산본 리모델링, 재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를 주최했으며 최근 당정역~서울역 지하철 군포시 범시민추진위 집행위원장 등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시지요. 군포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사명감의 발로인지요? 이 역할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언론인으로 오랜 생활 함께하다 보니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 군포발전을 위한 목표에 여러 시민을 규합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국립문학관을 군포에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점은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할 때 만난 ‘빈처’, ‘운수 좋은 날’ 등 단편소설의 대가 현진건 선생의 따님이 유품을 보자기에 쌓아 보관하고 남편인 박중화 선생의 아들이 라면상자에 담아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연합회 창립을 후원하고 금정역 지하철 추진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해당 사안 주도 세력들의 범시민화 지원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단체를 아우르고 지역발전의 길에 동참시킬 수 있는 장점도 군포신문이 가진 저력이라고 자부합니다.

**Q 군포예총 25년사를 정리하며 군포신문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지지하며 한편으로는 비판적 시각으로 지켜봐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군포예총의 25년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요?**

2001년 지역축제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군포예총 회장단의 동반사퇴 파동과 군포예총이 주최한 군포시장 후보 초청 문화예술 분야 토론회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편린입니다.

군포예총이 명실상부한 전문예술가 단체로 정착되도록 활동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온 군포신문이 보기에 2001년 시 당국에 항의의 뜻으로 회장단 전원이 동반사퇴한 일은 예술가적 자존심을 지킨 일로 기억됩니다. 문화원, 예총, 향우회연합회로 나눠 각각 추진되던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2001년 5월 군포시에서는 우선 문화원의 전통문화예술제와 예총의 태을예술제를 합쳐 제1회 수리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소외시키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무대를 꾸미는 등 형식만 민간 주도 지역축제이지 실상은 시 주도 유명공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고 군포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도 군포예총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군포시 당국의 지역문화단체 경시 풍조가 만연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군포예총 회장단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면서 시 당국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 군포예총이 주최한 군포시장 후보 초청 문

화예술분야 토론회에서 특정후보 폄하 의혹을 받았던 일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패널로 현장에 있었던 필자가 보기에 전혀 고의성이나 편파성이 없는 단순 질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아 결국 군포예총이 커다란 물적, 인적 손실을 입었던 일은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초창기 3개 단체에서 25년을 지나며 8개 가맹단체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군포예총은 전문예술인들의 단체인 만큼 재능 있는 인재들도 많고 개성 강한 분들도 많았는데, 군포신문이 그들의 창작활동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일도 영광으로 기억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군포예총이 발간한 25년사의 한 자락에 군포신문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영광스러운 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Q 지역언론인으로서 군포의 예술인들과 많이 교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예술의 현재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또 앞으로 군포의 예술인 혹은 군포예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문화예술인들이 더욱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중앙정부나 단체 공모사업에 참여해 창작품을 양산하고 시 당국 지원에 국한한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구 27만 도시에서 전문예술인 5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문화적 자산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 ‘군포문화대학’ 운영 등 시민들과 밀착하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 전문예술인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예총 8개 지부의 활동을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 전문예술 각 장르의 공연과 문화행사, 전시 등에 대한 지면 확대

군포예술공로상 수상자 이영호대표는 군포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산본신도시 조성 시기부터 지금까지 군포시의 구석구석을 살펴 공정한 시선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군포시민들의 관심이 큰 '군포 구도심 재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를 주최하여 군포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철쭉축제 및 독서대전, 2022년의 올래축제를 취재 기록하여 군포의 문화예술 풍경을 시민들에게 펼쳐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군포예술 활동을 취재하여 '예술이 곧 삶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예술인들을 성원하고 있으니 지역언론이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인터뷰 끝에 덧붙이자면 이영호 대표가 만들어 가는 군포신문이 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일부 인터넷매체들의 행보에 편승하지 말고 곳곳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군포신문 지면에 국악, 문학, 미술, 연극, 음악, 사진, 연예예술, 무용 등 전문예술 각 장르의 공연과 문화행사, 전시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풍성하게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영호 대표의 내공과 정성으로 다져진 군포신문사가 창대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다시 한번 예술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대담 및 글 오은희



#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 사)한국예총 군포지회 업무협약 체결

일시 | 2022. 02. 24(목) 16:00

장소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 군포예총, 서귀포예총과 업무협약을 맺다

군포예총에서는 2022년 2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지회장 윤봉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우의에 의한 예술교류활동을 하기로 협의했다. 서귀포예총은 1996년 3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탐라문화제, 이중섭 예술제, 서귀포문화예술제를 비롯하여 서귀포의 사계절을 예술로 승화시켜 예술을 통한 시민화합과 문화도시 서귀포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한 서귀포 사계예술제 등을 개최하는 등 제주지역에서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포예총에서 다른 지역의 예술단체와는 처음 맺는 이날 협약식에 강신웅 회장을 비롯, 장석기 2대회장, 전현하 수석부회장, 오은희 문인협회 군포지부장, 이숙진 사무국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하였고 서귀포예총에서는 윤봉택 회장과 강경훈 부회장, 김하월 무용협회 지부장, 장성훈 연예예술인총연합회장, 한영남 영화인총연합회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귀포예총 윤봉택 회장은 시인으로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나고 자란 서귀포예술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포예총과의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먼 길 찾아주심에 감사하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서귀포지역과 군포 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연계되는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 양 지역 예술의 발전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군포예총 강신웅 회장은 1996년 군포 예총 설립 이후 처음 타지역과의 업무협약이며, 이렇게 교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양지역의 예술문화 활동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 군포를 찾은 서귀포 예술인들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포예총 8개 단체가 여는 군포예인예술제가 군포시 전역에서 열렸다. 특히 27일 오후 4시 반월호수 수변무대에서 개막식이 펼쳐졌는데 서귀포예총

의 국악협회 무용협회 공연이 군포시민들에게 선을 보였다. 윤봉택 회장이 이끄는 서귀포예총 공연단은 ‘다시 모두의 곁으로’라는 군포예인예술제의 기치에 뜻을 더해 제주 민요 ‘신왕이지랑’과 ‘물허벅 아리랑’을 군포시민과 예술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주 창민요와 노동요 그리고 물허벅춤과 해녀춤으로 독특한 제주의 예술미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8월 말 아직,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공연을 펼쳤다. 제주의 아이는 신들의 보살핌 속에서 제주의 바람과 꽃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왕이자랑은 서귀포 사계예술제에서 공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제주여인은 한라산의 품에서 하늘의 흐름을 깨닫고 제주바다에서 도리를 알아가며 밭에서 겸손을 배운다는 삶의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한 물허벅춤은 군포예술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두 공연은 제주 여인의 강인하고 부지런한 생활, 제주의 전통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멋진 작품이었다.

윤봉택 서귀포예총회장은 2019년 대한민국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서귀포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예비도시로 지정된 군포시가 문화도시 본도시로 선정되기를 기원한다는 뜻도 전했다.





## 칠십리 공원에서 펼쳐진 군포예술인들의 공연

2022년 10월 22일 군포예총에서는 강신웅 회장을 비롯하여 전현하 수석부회장, 정소영, 김은희 부회장과 6개지부 지부장단 및 국악, 무용, 연예협회에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2월 24일 군포예총과 서귀포예총이 업무협약 및 예술교류 협약식을 맺은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에서 22·23일 이틀 동안 서귀포시 칠십리아외공연장 일원에서 제2회 사계(가을)예술제를 개최하며 군포예총 예술인들을 초대하였다. 사계예술제 첫날인 22일(토)에는 야외공연장 무대에서 시민예술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청소년 예술활동 경연과 서귀포시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을 선보였다. 군포예총의 예술인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여는 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하였다. 유형열 국악협회 지부장의 대북시나위 공연을 시작으로 초월 및 가야금연주가 합쳐진 웅장한 무대를 펼쳐 서귀포 시민 및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이어 김은희 무용가가 박병천류 진도북춤으로 무대를 꽉 채웠다. 군포의 노래 ‘철쭉꽃비가 내리면’을 부른 가수 신나는 강신웅 회장의 기타연주에 맞춰 ‘벚꽃길에서’와 제주도 노래 ‘감수광’을 선보였다.

서귀포예총의 사계 예술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서귀포시의 사계(四季)를 배경으로 활발하게 예술활동을 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활동을 부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귀포 사계예술제에 참여한 서귀포 시민들은 이런 다양한 공연을 자주 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군포예총과 서귀포예총 예술협약의 의의를 생각하며

군포예총과 서귀포예총의 예술협약은 공간이 다른 두 곳의 다양한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여 예술인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다른 예술의 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예총 전체적으로는 지역예술 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즈음의 문화예술의 흐름은 각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예술 발굴과 활용에 앞장서면서 다른 지역 예술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문학과 미술 사진 등의 전시교류도 시도해보고 지역축제 개최 시 초청공연으로 왕래하면 보다 활발한 예술협약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본다. 예술교류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협력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교류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글\_오은희

